

禮山名賢遺墨所藏展

서울 1978. 8. 20~24 新聞會館 画廊
大田 8. 26~28 大田文化院画廊
禮山 8. 30~9. 1 禮山郡庁會議室

主 催 社団法人 禮山文化院
後 援 韓國文化藝術振興院
韓國文化院聯合會
忠 清 南 道

凡 例

- 禮山郡(李朝時代의 禮山·德山·大興·三郡이 合郡됨)에서 出生·落鄉·僑居·等 緣故가 있는 名賢들의 遺墨을 為主로 했다.
- 選定에는 趙國元 先生과 任昌淳 先生이 맡어 주시었고 姜周鎭博士·李民樹先生·崔完秀先生이 參與해 주시었다.
- 解讀에는 趙國元 先生과 李民樹 先生이 手苦해 주시었으며 難解分만 다루었다.
- 年代順으로 엮었으며 展示에는 展示場의 調和를 보았다.
- 遺墨이 없는 名賢은 著書(遺筆)一卷式을 내놓았다.
- 緣故地는 面만을 表示했다.
- 選定の 基準은 1910年 以前(作故)으로 잡았다.

五 題 表

五	題	頁
阿	阿	1 3617
步	步	1 3717
燕士齋	士齋燕	8 1417
文淵	文淵	10 1417
菴	菴	34 317
正祖10年	英祖25年	34 317
1786	1776	34 317
正祖15年 (1788)	正祖5年 (1778)	37 417

· 三郡이 合
가 있는 名

이 말어 주
시었고 姜周鎭博士 · 李民樹先生 · 崔完秀先生이
參與해 주시었다.

- 解讀에는 趙國元 先生과 李民樹 先生이 手苦해 주
시었으며 難解分만 다루었다.
- 年代順으로 엮었으며 展示에는 展示場의 調和를
보았다.
- 遺墨이 없는 名賢은 著書(遺筆)一卷式을 내놓았
다.
- 緣故地는 面만을 表示했다.
- 選定의 基準은 1910年 以前(作故)으로 잡았다.



序 文

한국문화원 연합회장

노산 이 은 상

禮山은 烏山이니 孤山이니하는 옛이름을 지냈고, 그위에 今勿, 德豊등 옛이름을 가진 德山과, 任存城이란 옛이름을 가진 大興등 세 고을을 합한 고을로서, 모두 아울러 삼국시대 이래로 오랜 역사 전통이 아로새겨져 있는 고장이다.

동쪽에는 車嶺山脈이, 서북쪽에는 伽倻山脈이 뻗어내려 울을 둘렀고, 金馬川·無限川이 插橋川으로 흘러 들면서, 그 사이의 기름진 평야를 적셔 주는 곳이다.

禮山은 이같이 역사 깊고 아름다운 고장이라, 역대를 통하여 숭한 인물들과의 인연을 찾아볼 수 있으니, 이야말로 「땅과 사람이 서로 만나 더욱 빛난다」(地人相得)는 옛사람의 말 그대로인 것이다.

적이 헤아리전데, 이곳에서 출생한 이를 비롯하여, 낙향우거한 이와, 이곳에 묘소를 둔 이등, 이 고을에 인연을 가진 명현 지사들이 많은 것은, 과연 이 고을의 명예스런 일이거니와, 이번에 禮山文化院의 주관으로, 그 어른들 중에서 24명의 명현들을 뽑고, 그분들의 유묵 유품 40여점을 모아, 한 자리에 전시함으로써, 우리들이 쉽게 배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은 참으로 경하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과 글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에 글씨가 값나가는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글씨를 워낙 잘써서 사람이 이름나는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람과 글씨나 그림이 아울러 뛰어난 것이니, 이 어찌 비단 위에 수 놓은 격이 아니겠는가.

이제 전시된 출품 목록을 살펴보건대 自菴 金絳선생은 아버지 季文公이 大興현감으로 재임할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자랐던 이로, 비록 장수하지는 못했으나, 필력이 웅건해서 書道에 一家를 이루었던이요, 또 宣祖때의 재상 鰲溪 李山海선생은 일찍 季父 土亭에게서 글을 배워, 六세때 이미 大字를 썼고, 水墨畵로도 정평을 받은 이로, 그는 이곳에 낙향하여 살았고 산소도 이곳에 있는 바, 그의 草書 歸去來辭 四폭이 출품되었으며, 그의 아들 石樓 李慶全선생의 詩帖도 출품되었다.

靖憲公 仙石 辛啓榮선생도 이곳에 낙향하여 살았고, 산소도 이곳에 있는 분으로, 93세의 장수자로도 알려져 있거니와, 仁祖甲子年에 通信使從事官으로 日本에 갔을 때

의 紀行二卷이 출품되었고, 文孝公 浦渚 趙翼선생도 이곳에 산소가 있고,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이로서 일찌기 立朝50餘年에 충군애국의 인물로 드러난 이며 音律書畫에 두루 통달한 이인데, 그의 墨梅 1폭이 출품되었고, 그의 문하생이요 이곳에서 출생한 治谷 趙克善선생의 簡札도 전시되었다.

저 星湖선생의 형 玉洞 李淑선생은 이곳에 있던 숙부댁에서 자란 인연이 있었거니와, 그의 필법은 晋體를 밟지 않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한 이라, 우리나라 書道 眞體는 玉洞으로부터 비롯 되었다고까지 칭송 받는 이로서, 그의 行書屏風 八폭과 족자 二폭은 처음 공개되는 진품인 것이다.

그리고 驪州 李氏門中인 惠寰齋 李用休선생과 貞山 李秉休선생의 書札들과, 惠寰齋의 아들이요 星湖선생의 從孫인 錦帶 李家煥선생, 例軒 李^高煥선생, 木齋 李森煥선생들의 작품들도 출품되었다.

또 秋史선생의 高祖요, 이곳에 산소를 모신 靖憲公 急流亭 金興慶선생의 중국기행 두루마리 一點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이요 書法篆刻에 능한 月城尉 金漢薰과 月城尉의 손자요 秋史의 아버지인 酉堂 金魯敬선생의 簡札들도 출품되거나 秋史 金正喜선생의 科文 一點은 이미, 道文化財로 지정된 진품이며, 山泉 金命喜선생의 華嚴寺 上樑文은 忠南道에서 소장한 것을 출품한 것이다.

이곳 大興에서 살았던 水北 金光炫선생의 簡札도 있고, 그보다도 黃江門下 八學士의 한분인 文獻公 屏溪 尹鳳九선생과 그의 아우 肅簡公 石門 尹鳳五선생의 족자들과, 柿軒 李載威선생의 物譜 一책등은 보기 드문 진장품인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 모두의 숭앙을 받는 韓末의 義烈士로 이름 들린 勉菴 崔益鉉선생의 액자 一點과, 修堂 李南珪선생의 친필 甲午日記 一책과, 그의 조부되는 萊亭 李宗秉선생의 액자 一點등,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배관해야 할 귀중한 유묵 유품들이다.

우리가 서화전시회를 가지는 일이 적지 않지만은 이같이 한 지방에 인연 가진 명현들의 유묵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를 만든 禮山文化院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께는 물론이요, 특히 李鎭鳳 禮山郡守의 적극적인 후원과 조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여러 명현들의 유묵 유품들을 출품해 주신 후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는 바이다.



禮山出身名賢遺墨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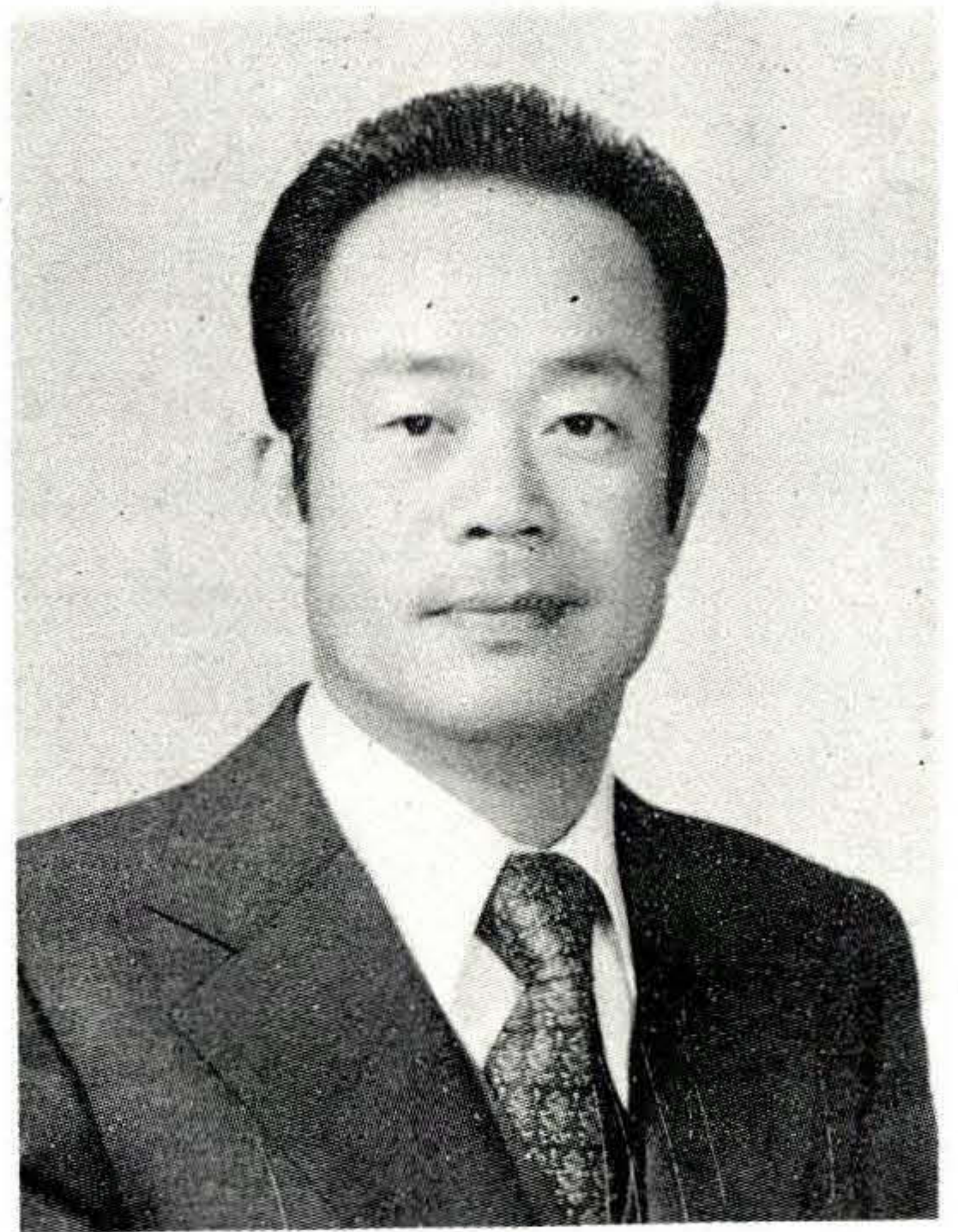
崔 淳 雨

禮山은 본래 선비의 고장으로 우리 歷史上에 두드러진 人物들을 많이 낳어준 아름다운 고을이다. 古來로 人脈이니 地脈이니 하는말이있드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였으며 따라서 이고을에서 태어난 오늘의 人物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내일의 人物들에게 그러한 이 고을의 傳統은 길이 이어질것이다.

이번 禮山文化院이 禮山出身 또는 禮山高을에 緣故가 깊었던 朝鮮王朝時代의 人物들을 추려서 그분들이 남긴 墨蹟을 모아 展覽會를 마련한것은 禮山高을이 지니는 자랑스러운 人物들을 追慕하고 또 再評價함으로써 오늘의 禮山人들에게 새로운 矜持를 심어주고 새世代의 젊은이들의 뜻을 기르려는 생각에서 이리라고 짐작이된다. 무릇 一國의 文化는 그나라 서울에서만 꽃이 필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앓된다. 즉, 서울이 求心点이 될수는 있지만 地方, 地方의 자랑스러운 人脈과 그 文化力量이 고루 均衡을 이루면서 자라날때에 비로소 지체있는 文化의 次元이 이뤄질수 있음은 두말할것도없다. 全國의 文化院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地方文化의 啓發育成에 힘을 기우리고 있는 까닭도 그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번 禮山文化院이 마련한 禮山出身 名賢遺墨展이야말로 그러한 뜻으로서 禮山地方文化의 傳統을 찾는, 말하자면 禮山人들과 禮山文化의 뿌리를 찾는 훌륭한 기회가 될줄로 믿는다.

특히 各地域의 여러家門 秘藏된 그러한 宝物들을 한場所에 뭉은다는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이라는것을 잘알고 있는 나는 이번 李恒馥 禮山文化院長이 기우린 勞苦에 좋은 보람이 안겨지기를 비는마음이며 아울러 그러한 家宝들을 선득 出品해 주신 여러家門에 대해서도 새삼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싶다.

(國立中央博物館長)



名賢의 遺墨圖錄

發刊에 즈음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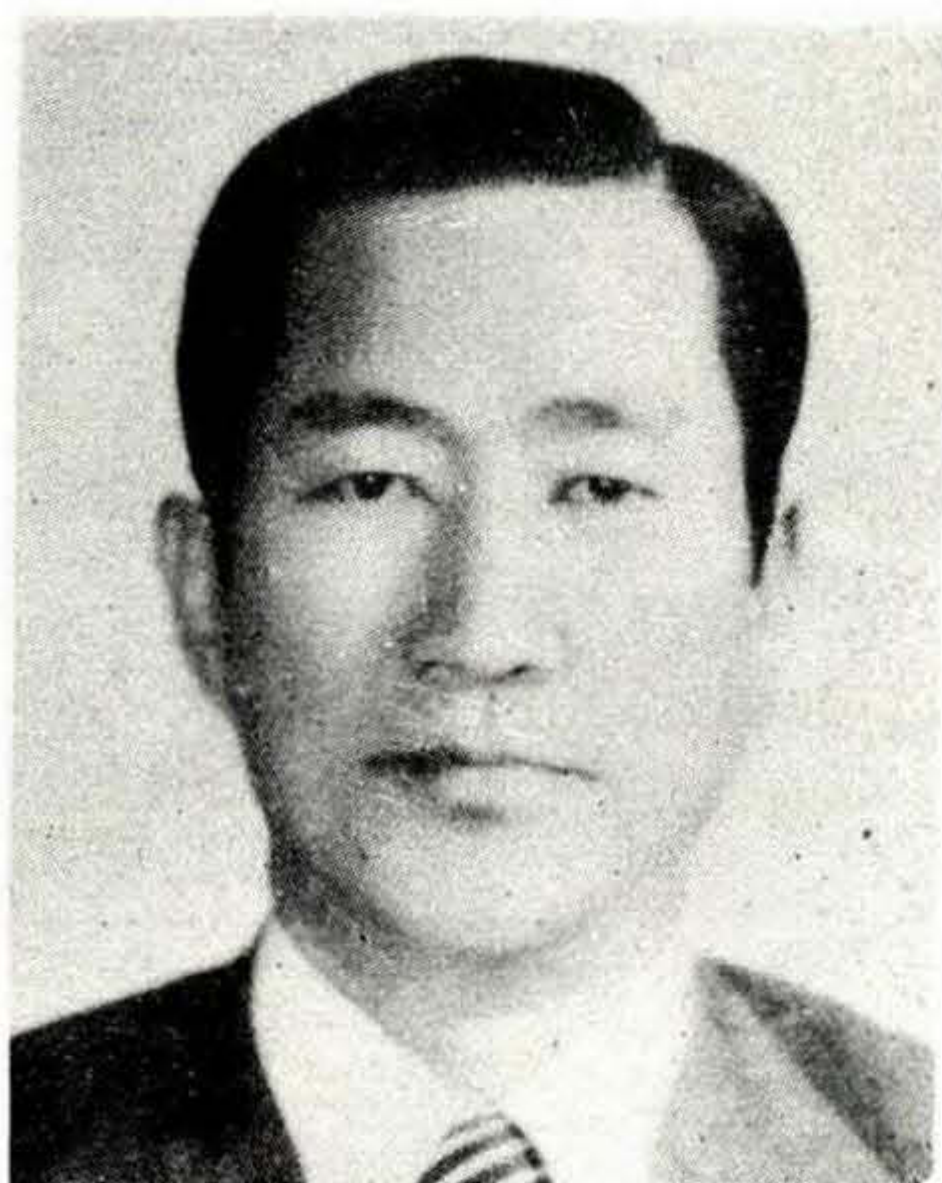
鄭 石 模

우리 고장이 낳은 名賢들이 남기신 遺墨이 한데 모아져 一目瞭然한 圖錄이 發刊됨을 眞心으로 祝賀드립니다.

우리 忠南은 百濟文化의 中心地로서 燦爛한 文物은 말할 나위도 없고 예로부터 江山이 아름답고 民心이 淳朴하며 많은 人材를 낳아 그 善行과 文財는 國家의 發展과 文化向上에 많은 貢獻을 이룩해온 傳統的 文化의 고장입니다. 우리 300萬 道民은 이와 같은 矜持속에 地域開發과 祖國近代化 作業에 參與하여 各 分野에서 中樞的인 役割을 担当하고 있어, 자랑스러운 文鄉으로서 많은 名賢, 名筆을 輩出한 文化의 搖籃地인 禮山에서 이들이 남기신 遺墨所藏展을 開催하고 이를 한데 모아 圖錄을 發刊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圖錄에 담겨진 우리 先祖들의 深奧한 思想과 技法은 우리 忠南人의 자랑이 되고 우리고장 文物에 새로운 價值觀의 賦與또는, 再發見의 契機가 되어 郷土 發展에 더욱 寄與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遺墨所藏展의 開催와 圖錄發刊에 온갖 努力을 傾注한 禮山 文化院의 勞苦를 높이 致賀드립니다.

(忠清南道 知事)



온 郡民의 뜻

李 鎮 鳳

우리 歷史의 흐름에 至大한 影響을 끼쳤던 名賢들이 우리 고장 禮山에서 많이 輩出되었습니다.

우리 禮山郡은 百濟文化의 얼을 이어받고 예로부터 文儒를 崇尚하여 燦爛한 文化의 꽃을 피웠던 文鄉으로서 自庵 金絀 先生을 비롯하여 秋史 金正喜先生 등 많은 筆賢을 輩出하여 名筆의 고장으로도 일컬어 왔기에 이분들이 남기신 卓越한 偉德과 技芸를 한데 모아 우리 마음의 良識으로 삼고 後世에 傳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던中 今般 禮山文化院에서 우리 고장이 낳은 名賢들의 遺墨所藏展을 開催하여 우리 先祖들의 얼을 内外에 宣揚하고 또 이를 한데 모아 圖錄을 發刊하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뜻 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展示會와 이 圖錄의 發刊은 16萬 郡民들의 뜻을 모아 우리 고장이 낳은 名賢을 追慕하고 내 고장의 傳統文化에 對한 矜持를 가지고 鄉土文化振興에 더욱 奮發하는 契機가 되어치기를 祈願하면서,

끝으로 予算과 場所等 많은 制約속에서도 遺墨 所藏展을 開催하고 圖錄을 發刊한 禮山文化院에 感謝드리며 아울러 勞苦를 慰勞드리는 바입니다.

(禮山郡守)

出品된 名賢

金		綵	(自 庵)	李	秉	休	(貞 山)
李	山	海	(鶯 溪)	金	漢	盡	(幼 輔)
李	慶	全	(石 樓)	李	嘉	煥	(例 軒)
辛	啓	榮	(仙 石)	李	森	煥	(木 齊)
趙		翼	(浦 渚)	李	家	煥	(錦 帶)
金	光	炫	(水 北)	李	載	威	(柿 軒)
趙	克	善	(冶 谷)	金	魯	敬	(西 堂)
李		淑	(玉 洞)	金	正	喜	(秋 史)
金	興	慶	(急流亭)	金	命	喜	(山 泉)
尹	鳳	九	(屏 溪)	李	宗	秉	(萊 亭)
尹	鳳	五	(石 門)	崔	益	鉉	(勉 庵)
李	用	休	(惠 賔)	李	南	珪	(修 堂)

扣而不流訓在中庸
顏之豈弟孔之溫恭
顏注矣孰繼遐踵卓
彼先覺元分淳公元
氣之會淳德之鍾瑞
祥雲霽月光風庭草
不除意思冲天地生
物氣象融萬物靜觀

金 絳
光州人
号 自庵
成宗19年 中宗29年
(1488~1534)
官 副提學
緣故 新岩

金寅贊所藏

傳來遺墨

境與天通四時佳興
樂與人同泯若圭角
春然心骨如玉之潤如
酒之醲晬面如血背月辭
色雅容待人接物德量
含洪和粹之氣涵養
之功敢以此語佩于願
躬蹤

李 山 海
 韓山人
 号 鷺溪
 中宗34年 光海1年
 (1539~1609)
 官 領議政
 緣故 大述

依々鳳吹隔猩苑霞上門前
 駐翠華十二樓臺山月
 白五更清露滴池荷

依々鳳吹隔猩苑霞上門前
 駐翠華十二樓臺山月
 白五更清露滴池荷

李翰馥 所藏

窓外初疑月影微起看雲
 靄掩清輝天公亦避人
 間諺不欲分明照是非

窓外初疑月影微起看雲
 靄掩清輝天公亦避人
 間諺不欲分明照是非

李南求 所藏

文起 侍集 奉復狀

四月五日

情翰忽及於馳念之中令人披慰萬
々且審牙縣
來待當此公家多事之時殊爲末安耳
生初擬念五發程而妻病不意危
急兒子泣扶勢難捨去今則症似向
敬而猶未快蘇生又中寒非輕
仍成寒熱之症深 戶奴所志
于方伯此亦不無種々之意遲留
未快可嘆如不免龜勉登道則
當不出三四日之內此行勢末相值
唯待因公 上洛之日耳且想路傍
殘邑方爲難支公之欲去情固然
矣而無端棄官顯有譴罰恐不
如早晚因事罷歸之爲得如何々々雉
首爲感賊奇果然則未能雪憤
雖可痛而民生之幸可言々々姑惟
照亮敬祝千萬
珎重情長紙短只此不備拜復

四月五日 山海

雲住寺記

月夜訪雲住寺記
萬曆庚子冬余蒙
恩謫寓居鶴城之柿田
村之南爲道古山岡巖
洞屋之麗甲於明左山凡
三十六峯而第一峯正當
吾門之西五六峯環擁
左右如戟冠丈人屹然高坐

歸去來兮田園將蕪胡不歸
 既自以心爲形役奚惆悵
 而獨悲悟已往之不諫知來
 者之可追實迷塗其不遠
 覺今是而昨非舟搖々而輕颺
 風飄々以吹衣問征夫以前路恨
 晨光之熹微乃瞻衡宇
 載吹載奔童僕歡迎
 兒子候門三逕就荒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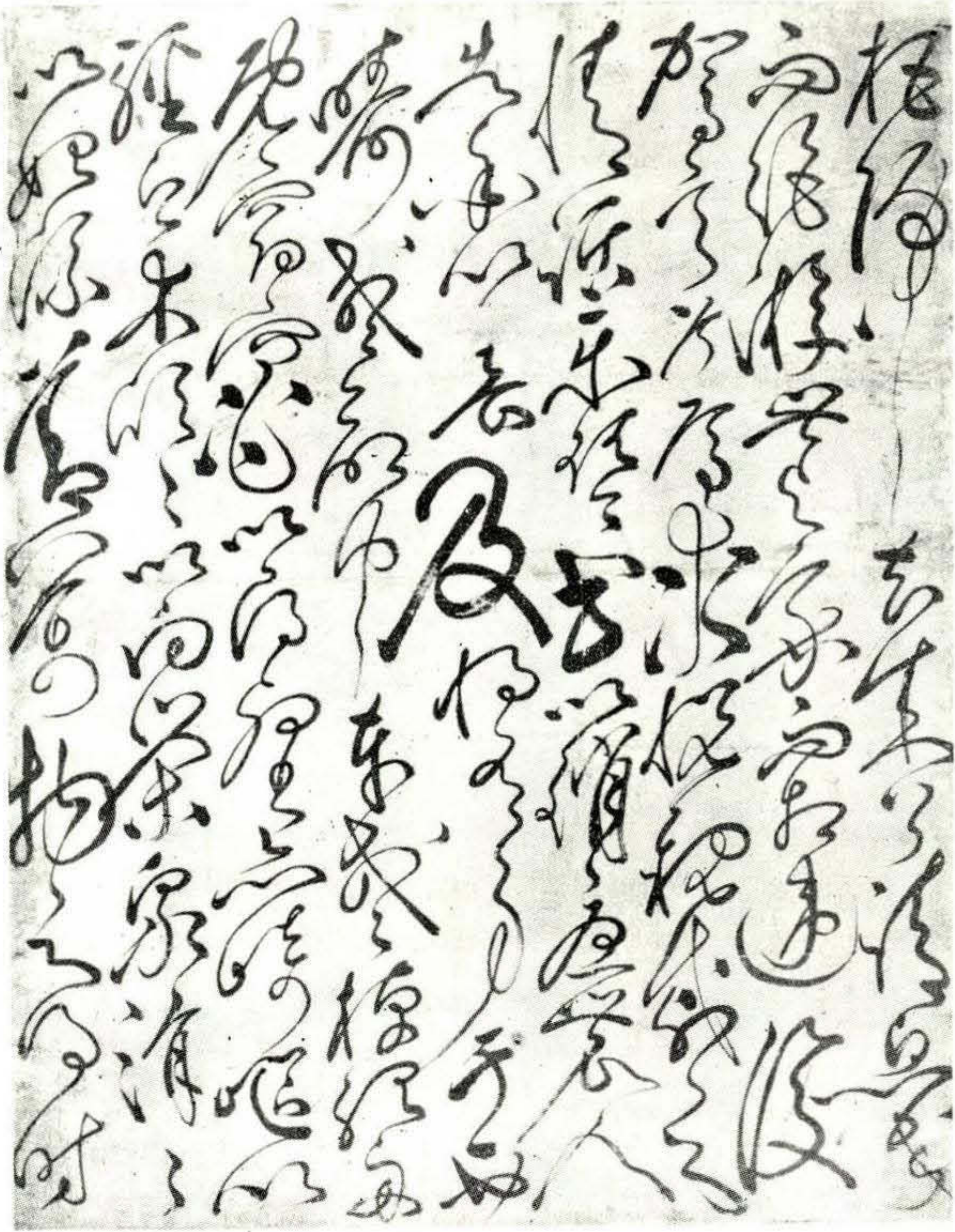
歸去來兮田園將蕪胡不歸
 既自以心爲形役奚惆悵
 而獨悲悟已往之不諫知來
 者之可追實迷塗其不遠
 覺今是而昨非舟搖々而輕颺
 風飄々以吹衣問征夫以前路恨
 晨光之熹微乃瞻衡宇
 載吹載奔童僕歡迎
 兒子候門三逕就荒松

李南求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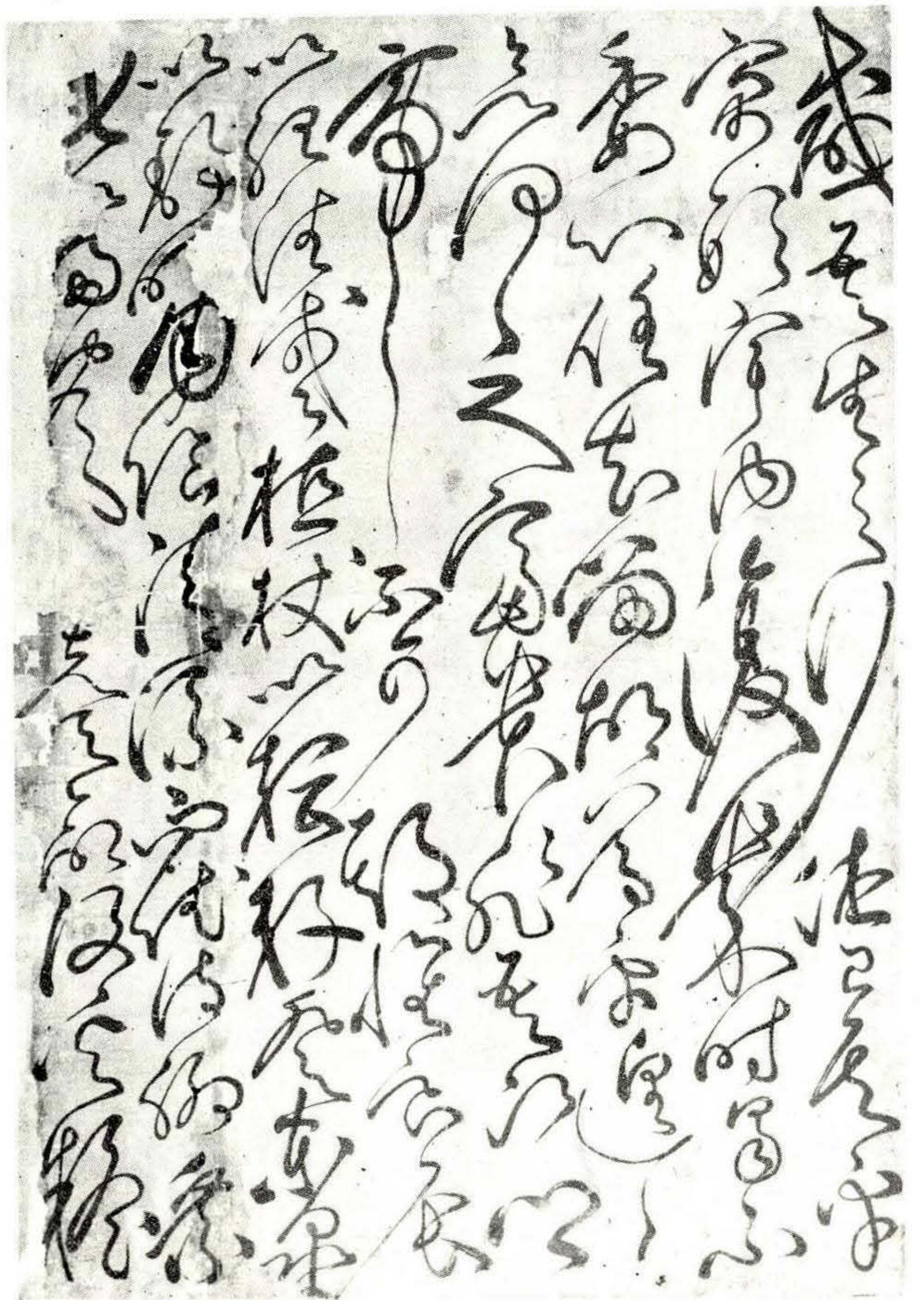
菊猶存携壺觴而入室有
 酒盈樽引而自酌眄庭柯
 而怡顏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園日涉
 以成趣門雖設而常閑策
 扶老而流憩時矯首以遐觀
 雲無心而出岫鳥倦飛而知
 還景翳々以將入撫孤松而盤

菊猶存携壺觴而入室有
 酒盈樽引而自酌眄庭柯
 而怡顏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園日涉
 以成趣門雖設而常閑策
 扶老而流憩時矯首以遐觀
 雲無心而出岫鳥倦飛而知
 還景翳々以將入撫孤松而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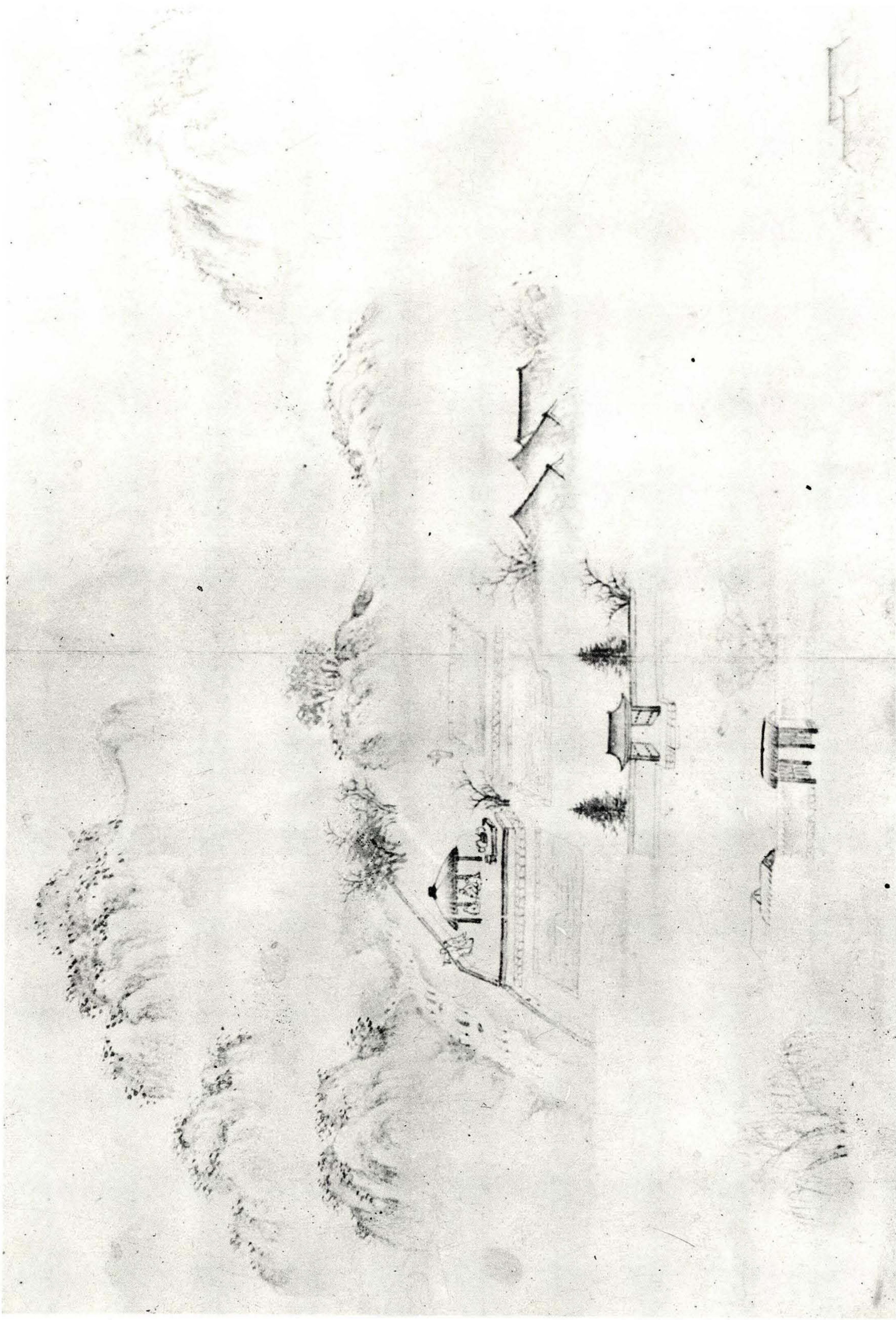
桓歸去來兮清息交
而絕遊世與我而相違復
駕言兮焉求悅親戚之
情話樂琴書以銷憂農人
告余以春及將有事于西
疇或命巾車或掉孤舟
既窈窕以尋壑亦崎嶇以
經丘木欣欣以向榮泉涓涓
以始流羨萬物之得時



李南求所藏



感吾生之行休已矣乎
寓形宇內復幾時曷不
委心任去留胡爲乎遑々
欲何之富貴非吾願鄉
帝不可期懷良辰
以孤往或植杖以耘耔登東臯
以叙嘯臨清流而賦詩聊乘
化以歸盡樂夫天命復奚疑



李慶全
韓山人
号石樓
明宗22年~仁祖22年
(1567~1644)
官左參贊
緣故大述

每食
時因束縕齋苦猶却倩
茶鑪煮蕨薇每食不知爲客
苦馮歡何事浪思歸
老翁
問老翁年幾何翁言八十又
三加渾家出野獨看屋寂々
坐場籬日斜

每食
時因束縕齋苦猶却倩
茶鑪煮蕨薇每食不知爲客
苦馮歡何事浪思歸
老翁
問老翁年幾何翁言八十又
三加渾家出野獨看屋寂々
坐場籬日斜

李民樹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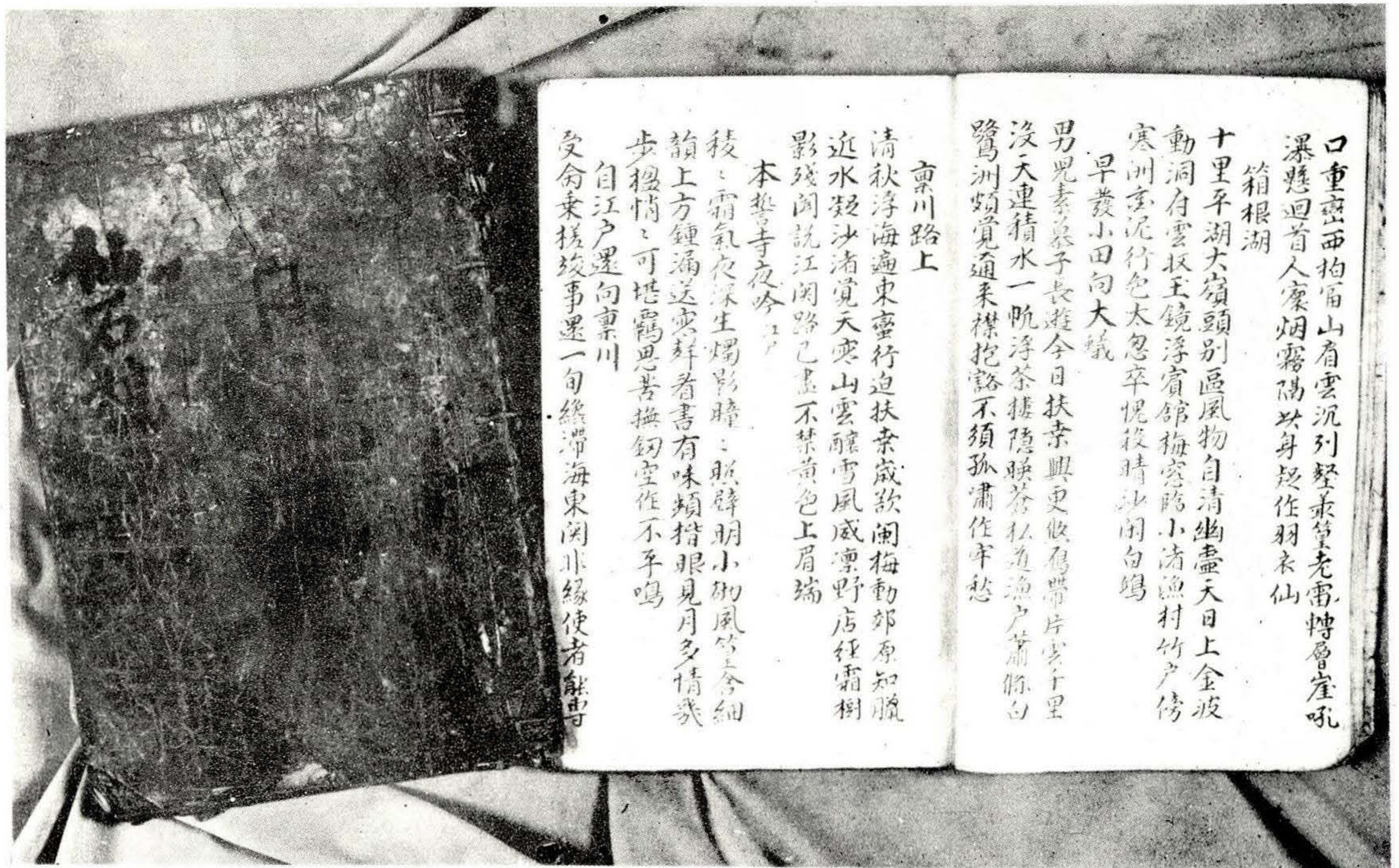
清風楔帖の詩一句

茶
右
諸公 閣下簪初盡拂袖
香烟共整鞍首事勝遊
誰立幟擔當豪辦屬
連環天機袞、元無盡
世故忽、自不閑只是武
後難弄到桃花流水畫中
看
右
韓平君李慶全仲集
乙酉同馬丁卯生韓平人
庚寅刻試

李貞遠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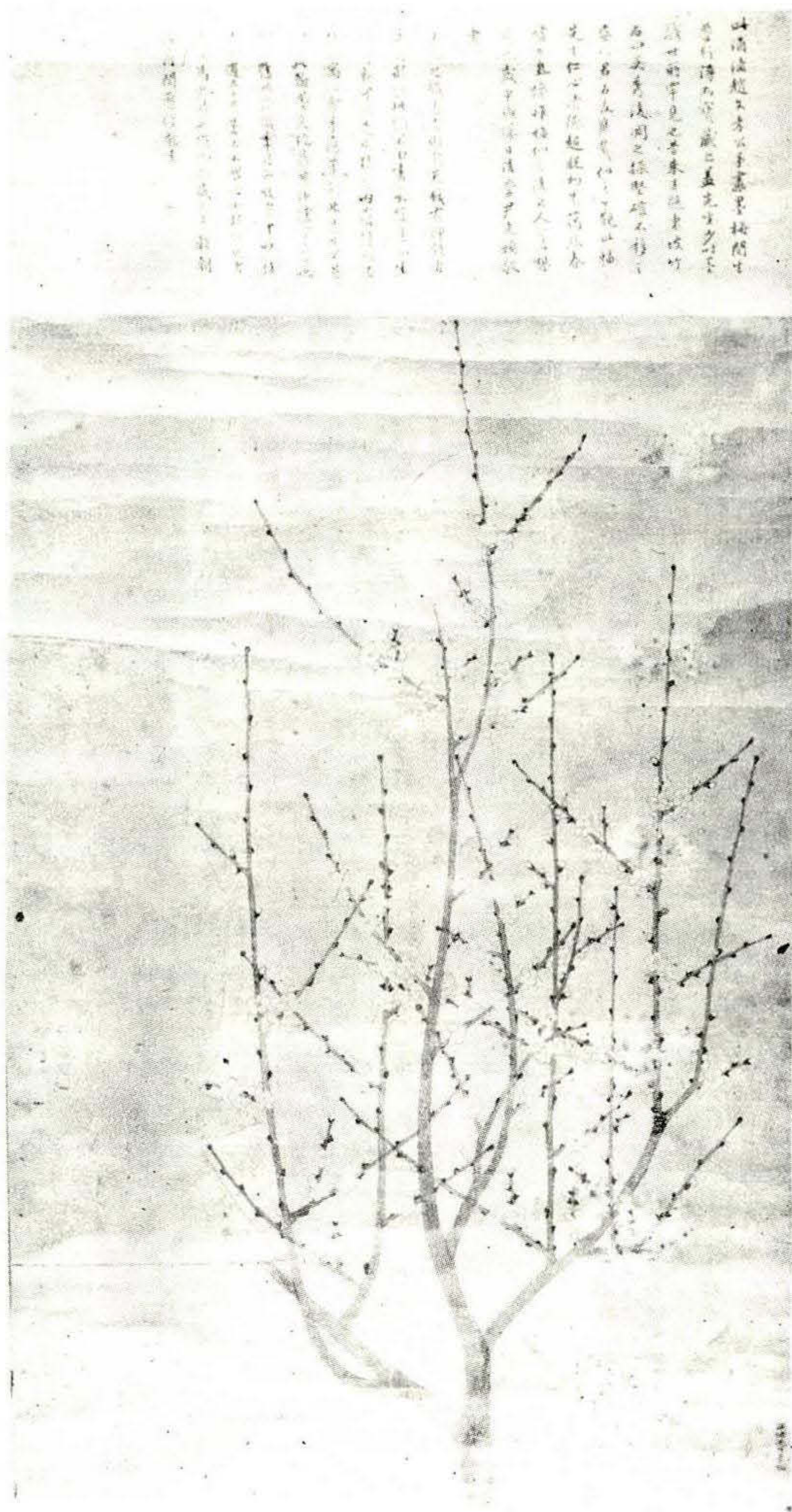
辛 啓 榮
靈山人
号 仙石
宣祖10年～顯宗10年
(1566～1669)
官 判中樞
緣故 大述

仙石稿 中 1面



辛 基 植 所 藏

趙翼
 豐壤人
 号浦渚・存齊
 宣祖12年～孝宗6年
 (1579～1665)
 官左議政
 緣故新陽



趙璜默所藏

次鶴麓韻送
 白洲赴西邊武科試場
 離憂雖不久臨別自
 傷情風雨收殘暑
 関河問幾程旋旗
 出玉塞貅虎集金
 城從此奴都頸應
 知係以纓
 丙寅七夕 浦渚

次鶴麓韻送
 白洲赴西邊武科試場
 離憂雖不久臨別自
 傷情風雨收殘暑
 関河問幾程旋旗
 出玉塞貅虎集金
 城從此奴都頸應
 知係以纓

丙寅七夕浦渚

浦渚公



謹承

台下翰得審寒沍

台體候安勝仰慰々第聞

富平所患不輕深用爲

之止止調治得宜自當平

後是是之望僕老疾之

集不不後爲人思爲

睿

思思思思思思思思思思

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人決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思思

聖明知其有病之實則必

許令退伏調病也

臺柑子仰感々餘不備宣

伏惟

臺下寬德拜

上謝狀

甲午至月廿一日

趙璜默所藏

子祝之一部

氏子八月廿七日丙辰夜
 不于已子進士未陽之靈而告、曰嗚呼我子今
 何往乎汝何爲而不在吾側耶何爲而不得見汝之面
 目何爲而不得聞汝之聲耶其更何如也
 聞汝之語言耶其與汝永離耶余何賴而生於世耶
 嗚呼死生有命人之生在人國人所不得爲也然思汝得
 之由及治病之失宜之過則人事節節有失以致之
 之肝腸也則余之不明於事細也於必傷之地而
 思之節之腸裂至於汝之痛日就其痛而後思之罪也余
 言日謂其是當其是思其是思其是思其是思其是思其是
 其思其是思其是思其是思其是思其是思其是思其是
 且余欲有所爲汝欲止之始幾言而我怒爲折之使不
 得復言今而思之汝只欲陳其所見我當使盡其言
 復容及後察其可否可也奈何適適之使汝鬱抑而思
 過思之痛恨何能我於諸親愛之非不至也至於觸之
 過思此乃吾之病痛然此只是一時之病痛非有憎疾之
 之思也亦知一時之病痛爲此平生之痛恨耶嗚呼汝知
 吾恨相去數十步余數往視汝病汝病止之一日曰起
 往來何勞吾何微憐而不往耶當一往視汝之病來吾當
 思於中語汝謂吾氣力可往來前野十度以明其不病當
 思余之愛汝之深如是也今五月當往視汝於點村汝又止
 之有謂而日不見汝則不見其甚也汝之望不思見我十及當

懇想

聖明知其有病之實則必

許令退伏調病也

惠柑子仰感々餘不備宣

伏惟

台下寬德拜

上謝狀

甲午至月廿一日

謹承
 台下翰得審寒沍
 台體候安勝仰慰々第聞
 富平所患不輕深用爲
 慮然調治得宜自當平
 復唯是之望僕老疾已
 深不可復齒於人監蒙
 睿眷 恩召疊至感激惶悶
 不知所爲當此極寒病
 人決不可上去是以再疏陳

金光炫
安東人
号 水北
宣祖17年~仁祖25年
(1584~1647)
官吏 參
緣故 大興

金光炫 母 安東 仙
字 晦叔 水北
仁祖朝文臣 官吏 參判

民賓寄書

近來

侍奉會家安過否阻音戀慮々々余
依保從仕而韓判書去初三不意
喪逝驚怛不可言也洛中別無緊
報而天變無日無之以是人皆憂
懼未知前頭有何應耳
世子回還胡將日々催促望間似當
離京云前因歸便屢次作書皆傳
致照否泰安船厥後更無消息
耶今聞堤川家歸人只報片音所望
勿浪逝勤讀書餘不一言
二月初六
潘來書送之耳

父

恨未知前頭有何應耳
孝回還胡將日々催促望間似當
離京云前因歸便屢次作書皆傳
致照否泰安船厥後更無消息
耶今聞堤川家歸人只報片音所望
勿浪逝勤讀書餘不一言
二月初六
潘來書送之耳

父

金英漢所藏

趙克善
韓陽人
号 治谷
宣祖28年~孝宗9年
(1595~1658)
官 掌令
緣故 鳳山

文穆公親筆

見書備悉為幸吾以任實兼任
往供 實錄行于錦山到龍潭
得免而歸然費八箇日還衙耳
晟也能以對策中初試幸也竟
以其懶疾為祟能無愧於心乎
汝歸已往清州汝可來此數日
後汝叔川官奴二官馬一上去
汝可來矣崔弘斗囚禁朴舜之
喪妻可嘆尹生時亮奄忽化
去慘怛如何不具癸亥月七日
父

見書備悉為幸吾以任實兼任
往供 實錄行于錦山到龍潭
得免而歸然費八箇日還衙耳
晟也能以對策中初試幸也竟
以其懶疾為祟能無愧於心乎
汝歸已往清州汝可來此數日
後汝叔川官奴二官馬一上去
汝可來矣崔弘斗囚禁朴舜之
喪妻可嘆尹生時亮奄忽化
去慘怛如何不具癸亥月七日

父

李 淑
驪州人
号 玉洞
顯宗 3 年～景宗 3 年
(1662～1723)
官 察訪
緣故 古德

江上數峯青
曲終人不見
孤烟生洞庭
落々下平楚

落々下平楚
孤烟生洞庭
曲終人不見
江上數峯青
玉洞書與子

李 暉 衡 所 藏

瓶如口守

瓶如口守

堯曰咨爾舜天

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四海

祿永終舜亦以命

禹曰予小子履敢

用玄牡敢昭告于

皇天后帝有罪不

敢赦帝臣不蔽簡

在帝心朕躬有罪

李墩衡 所藏

堯曰咨爾舜天
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四海

祿永終舜亦以命
禹曰予小子履敢
用玄牡敢昭告于

皇々后帝有罪不
敢赦帝臣不蔽簡
在堯心朕躬有罪

防 意 如 城

防 意 如 城

無以萬方萬方有

罪之在朕躬周有

大賚善人是富

雖有周親不如仁

人百姓有過在予

一人謹權量審

法度修廢官四方

四之政行焉興滅

國繼絕世舉逸

無以萬方萬方有
罪之在朕躬周有
大賚善人是富

雖有周親不如仁
人百姓有過在予
一人謹權量審

法度修廢官四方
之政行焉興滅
國繼絕世舉逸

李墩衡所藏

子諒之生

子諒之生

民天下之民歸心
焉所重民食喪
祭寬則得衆信

民天下之民歸心
焉所重民食喪
祭寬則得衆信

則民任焉敏則有
功公則悅說功

則民任焉敏則有
功公則悅說
壬辰仲秋玉洞書與子

壬辰仲秋玉洞書與子

李

李墩衡所藏

春 嘘 物 茁

春 嘘 物 茁

金 興 慶
慶州人
号 急流亭
肅宗 3 年～英祖26年
(1677～1750)
官 領議政
緣故 新岩

過葱秀
行々萬水又千山
五日纔過葱秀関
石竇鳴泉猶舊響
峽林啼鳥搃新
顔詞人從古留文
藻勝地至今但雪
巒宿債緣忙苦樂
償前期姑待伴
春還

金 煥 冀 所藏

臨完
過葱秀
行々萬水又千山
五日纔過葱秀関
石竇鳴泉猶舊響
峽林啼鳥搃新
顔詞人從古留文
藻勝地至今但雪
巒宿債緣忙苦樂
償前期姑待伴
春還
舊

尹 鳳 九
坡平人
号 屏溪，久芸
肅宗 7 年～英祖 43 年
(1681～1767)
官 工判
緣故 德山

揚休山立玉色金輝元氣之會
渾然天成瑞日祥雲和風甘雨
龍德心中厥施斯普
規圓矩方繩直準平允矣君子
展也大成布帛之文荇栗之味
知德者希孰識其貴

右明道先生画像贊
屏溪居士六十五
右伊川先生画像贊
石門散人二十書

尹稷漢所藏

尹 鳳 五
坡平人
号 石門
肅宗 14 年～英祖 46 年
(1688～1770)
官 判敦寧
緣故 德山

從孫載重字幼輿說

形而上而重者為綱常形而下而重者
為華嶽誰載綱常人身是也誰
載華嶽坤輿是也然則人身之載
綱常猶坤輿之載華嶽故字
載重曰幼輿焉取比也雖然山即撮
土之聚而高大者而已爰倫乃撐支
宇宙根本教化者為尤重矣而載
重為我 弘道先生之孫其所承之
重又自別矣噫七尺之軀所載甚重
而其重為形而上者則其所載之
輿必非形而下者輿何在敬傳
曰敬為輿

惠實翁書

從孫載重字幼輿說

形而上而重者為綱常形而下而重者
為華嶽誰載綱常人身是也誰
載華嶽坤輿是也然則人身之載
綱常猶坤輿之載華嶽故字
載重曰幼輿者取比也雖然山即撮
土之聚而高大者而已爰倫乃撐支
宇宙根本教化者為尤重矣而載
重為我 弘道先生之孫其所承之
重又自別矣噫七尺之軀所載甚重
而其重為形而上者則其所載之
輿亦必非形而下者輿何在敬傳
曰敬為輿

惠實翁書

李 用 休
驪州人
号 惠 寰
肅宗34年~正祖 6 年
(1708~1782)
官 僉 樞
緣故 古 德

李 墩 衡 所 藏

遺稿中一面

無數疲眠入撫摩
呻吟未久化詭歌

又

史退公庭罷晚衙
簾前樹影正橫斜

又

爰書情法貴相參
未定為陽已定陰

又

先輩行之榜樣留
災荒過實未為尤

送睦幼選之任庇衆

言語只是聽好
文章只是看好

又

儒生讀書講學
自謂經綸甚多

又

君本金陵徧戶
征幾作守宰者

又

不嫌塞土官所薄
藜藿平生咬得多

清宵步月悠思
傾軋同胞念家

一字咸增人命係
須於此處更留心

煩君計上司農日
莫把陳田幻有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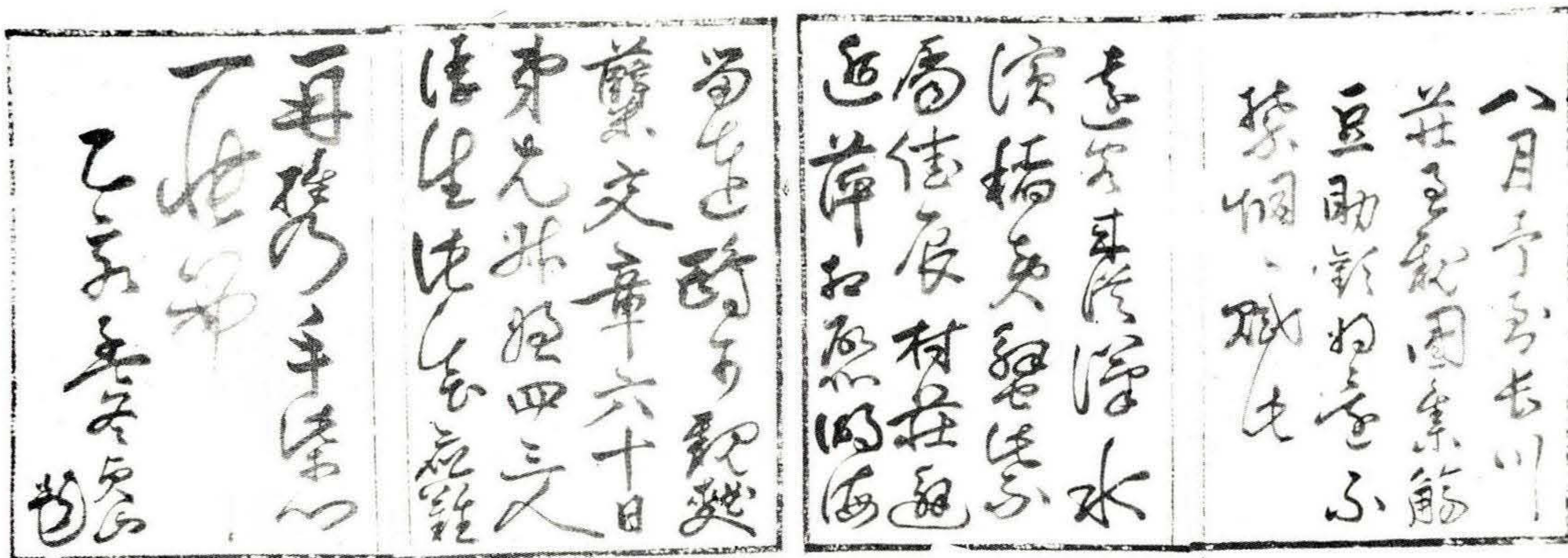
二者都不濟事
濟事只在做好

今付百里民社
將有欲施如何

其所貪寬猛
政為今日取捨

李 秉 休
驪州人
号 貞山
肅宗37年~英祖52年
(1711~1776)
緣故 古德

八月予到長川
莊至親團集觴
豆助歡將還不
禁憫々賦此
遠客來從漢水
濱稻黃蟹紫
屬佳辰村莊邈
近萍相聚湖海
留連鷗可親麵
藥文章六十日
第兄叔姪四三人
浮生此會應難
再携手柴門
一悵神
乙亥孟冬貞山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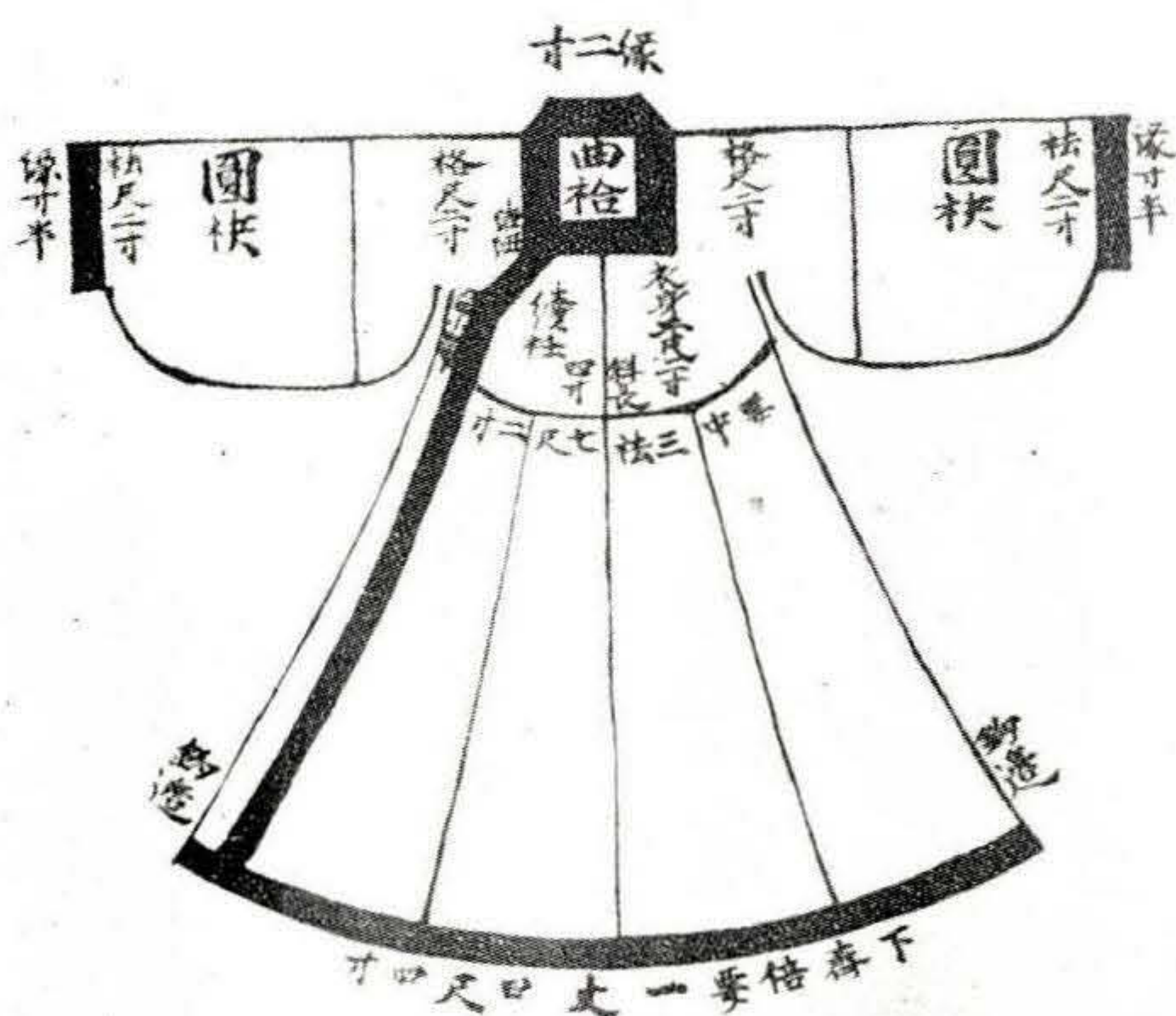


李 暉 衡 所 藏

遺稿中 一面

服也愚謂深衣之制今可考信者幸有玉藻深衣數
篇其次鄭註近古故今茲杜撰悉據此為制而但續
社之注決非經意故更考經文而改正焉其餘諸義
亦非臆說而出於事實深衣辨證而少加修潤因撰
深衣前後圖附于下然其所論尺寸蓋以中人言也
今人身之大小長短或有絕異者則不必拘此衣取
至腰之中取圍身相掩格取運肘袂取反袖及肘袂
取容兩手裳取及踝下齊取倍腰只看其身之大小
長短而裁制得宜抑可也家禮之文蓋本於司馬公
書儀者而蔡氏淵謂先生病其不得古意或已脩之
或未及脩焉然則其非定制甚明其圖又與家禮之
文不合者多而此未暇論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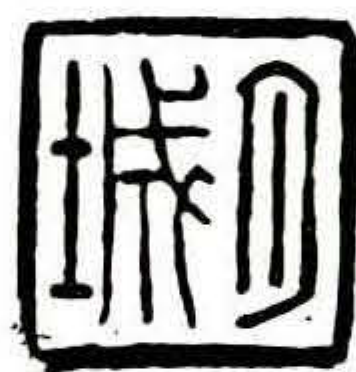
圖前衣深



五代祖考年譜

甲子公始生
八月二十三日
辰壬

時生



乙丑二歲

丙寅三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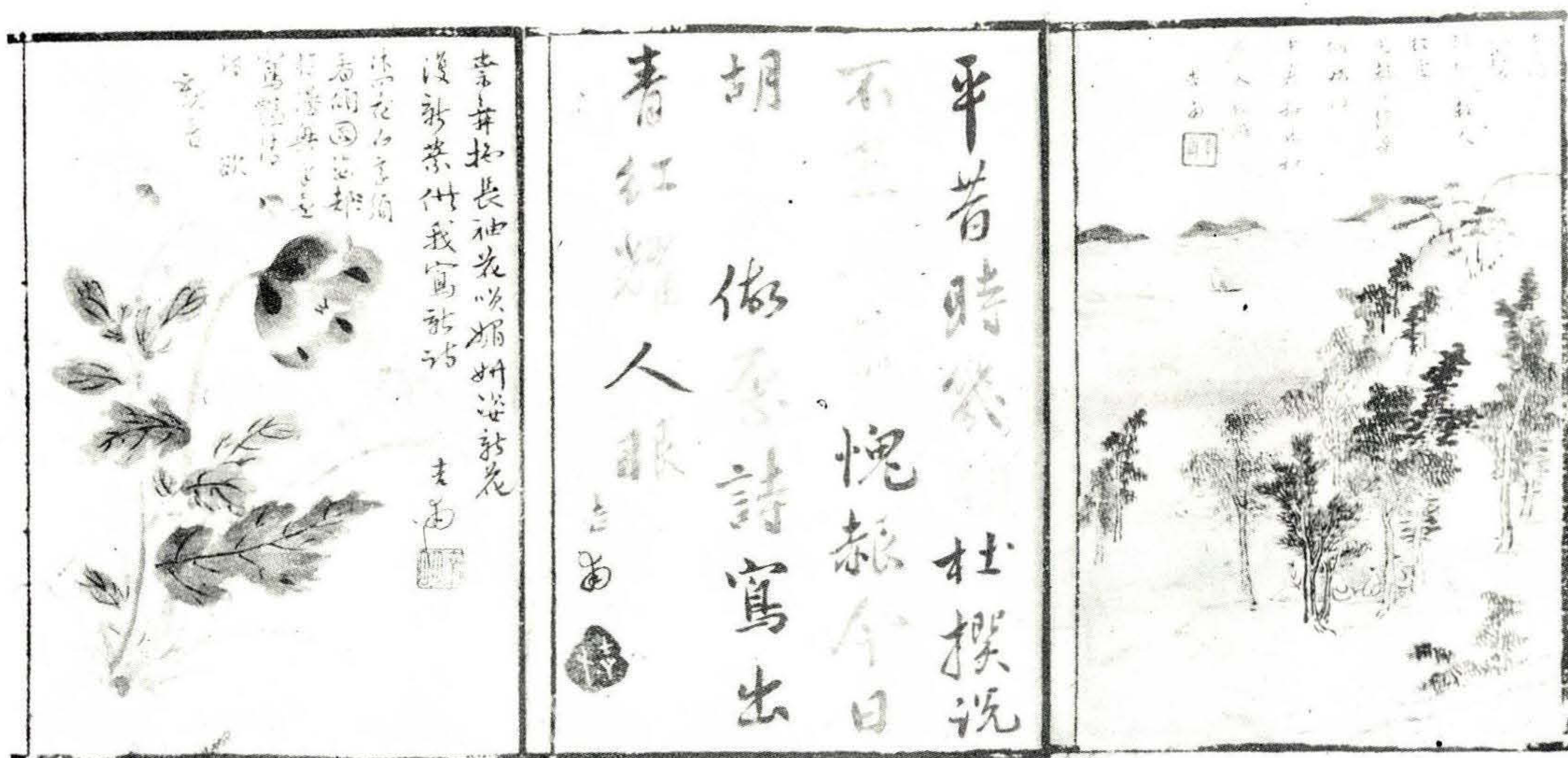
丁卯四歲

戊辰五歲

金聲基所藏

金 漢 基
慶州人
字 幼輔
肅宗46年～英祖34年
(1720～1758)
官 五衛都總官, 月城尉
緣故 新岩

李 吉 煥
驪州人
号 例軒
景宗 2 年～正祖 3 年
(1722 年～1779)
縁故 古德



李 暉 衡 所 藏

平昔時幾句杜撰說
不盡人前愧赦今日
胡辭做歪詩寫出
青紅耀人眼
吉甫

李 森 煥
驪州人
号 木齊
英祖 5 年～純祖 13 年
(1729～1813)
緣故 古德



李 墩 衡 所 藏

吾友鄭君房博聞多識兼工書畫日訪
我西湖之上余謂之曰余無子今老且死願
留眞像一本留世子蓋圖之君房辭不能凝
思良久而曰得之矣石上孤松古瘦勁挺非公
之器宇耶已又曰得之矣山溪清徹不着一點
塵氣非公之意態耶遂寫此幅賄我曰此公之
傳神若顏髮形貌未也余感其意受而藏
之
小眉山人書

八十二歲木齋老人哭談于

我彌甥廣州李童子靈輅前日嗚乎汝去何

之嗚乎汝去何之汝母病將死托汝於余勤懇

一言一決余甚悲之心欲盡心養護期至於成立

汝病之日余亦淹疾臥牀不能往來診視卒使

汝死而不得活嗟乎余負汝母余老且病百憂

叢集餘生幾何會向地下相見今不多言果餌

炙糲物薄情厚出我衷悃汝為一嘗而去

矣嗚乎亨

八十二歲木齋老人哭談于

我彌甥廣州李童子靈輅前日嗚乎汝去何

之嗚乎汝去何之汝母病將死托汝於余勤懇

一言一決余甚悲之心欲盡心養護期至於成立

汝病之日余亦淹疾臥牀不能往來診視卒使

汝死而不得活嗟乎余負汝母余老且病百憂

叢集餘生幾何會向地下相見今不多言果餌

炙糲物薄情厚出我衷悃汝為我一嘗而去

矣嗚乎亨

李 嗽 衡 所 藏

正宗朝 廷說

辛亥十二月初一日

景泰宮蔡堂只 命大臣入侍 上曰在泰供辭所見之字對曰未及見矣
上曰今已革心誠宰矣 命注書持入供辭敗臣覽訖曰此人快 悔悟此道此存
神之效也宜不可幸耶 上曰卿頃以李森煥事陳達其人亦足難得之儒則何可
有助於國邪之政矣予嘗見李某某 所著書有曰西士尚在膠漆益中云云森
煥之平日持論亦如此云湖西諸郡至 之類若使森煥曉諭則豈不有益耶戲
臣曰聞森煥所居環三四十里內無善者云若以 上教傳示於渠則渠豈敢悍
勞而至誠問諭至十至百或有不聽從之道矣 上曰卿以予意如此即速書報必於
未歲暮春前使之告厥成功可也若能書為對揚朝家豈無酬勞之典耶賊臣曰
當依聖教為之矣

小眉山房汲古經二

誠正修部

胡致堂曰其難強如忌心其難制如欲心其難降如驕心其難平如怒心其難抑如
忌心其難開如感心其難解如親心其難正如偏心其難放也

或問為學多為事嚴曰事未到時心先忙事已過時心不定所以占時節多

曹安曰忿怒之際切不可指人隱諱祖父家門之事古人謂傷人之言深于矛戟

又曰好戰者陣亡好訟者獄死雖俗語與張文潛書五代郭崇韜後方好謀之士

敗于謀好辯之士敗于辯同

韓魏公曰閱人多矣久而不變為難一知非為小人便以小人處之更不須較也

胡文定語楊訓曰人家最不要事三足意得當有些不足處便好人家才事三足意

便不好事出來

朱子曰耐猶臆也近則汚人廉傑之士耻言之

陳搏云我見世人忙箇三忙如大忙者不為身為身忙却可

劉元城云欲得一夫不如行取一尺

汲公保身說六人生昏亂之世不在其位四海橫流而欲以口舌救之誠否人物激
濁揚清撥蛇虺之兩路展狼之尾以至身被淫刑禍及朋友士類滅國隨以亡不

李家煥
驪州人
号 錦帶, 貞軒
英祖18年~純祖 1 年
(1742~1801)
官 工判
緣故 古德

庭旂奉候
頃聞所患非細驚慮不可言旋
聞不汗而慮想非涉疑而逐
年大病 病根在身可慮
日來 加減如何而能無餘症
甲哲亦快健遊走否俱甚
馳慮此僅遺耳爲探候
草不絮砂糖少許寄去以助
口味魴魚少許亦付送耳
戊申五月十二日從書

李墩衡所藏

李 載 威
驪州人
号 柿軒
英祖33年~純祖26年
(1757~1826)
緣故 古德

著書의 1面

之際或稍失其真故我先人雲圃先生病東人之疎於物名輒有收錄然卷
表之間散見雜出門類不備故余竊類聚羣分畧成條貫然後以品物則
草木之禾穀蔬菜果瓜花藥水族之鱗鱗鱗鱗互虫豸之蛭飛蠕動鳥
獸之木棲水宿草伏窟藏者列焉以人為則凡衣服飲食宮室舟車
耕農蠶績工匠漁釣服飾器皿之類具焉凡天壤之間萬物萬事益
畧備而西之人為之事莫不上於品物之用矣苟察此書則養生送死
者庶不混於名物而其於古之禮比興之義亦不無少補歟古人有
禾譜器譜花譜菊譜等故此則總名之曰物譜云爾

壬戌仲冬驪州後人李載威書

物譜目錄

上篇 天生萬物

草木部

禾穀

花卉

蔬菜

藥草

蔬菜

藥草

雜草

雜草

木果

雜木

草果

鱗虫

花卉

虫魚部

介虫

羽虫 水鳥

水族

毛虫 草宿

虫豸部

毛虫 腐居

走虫

飛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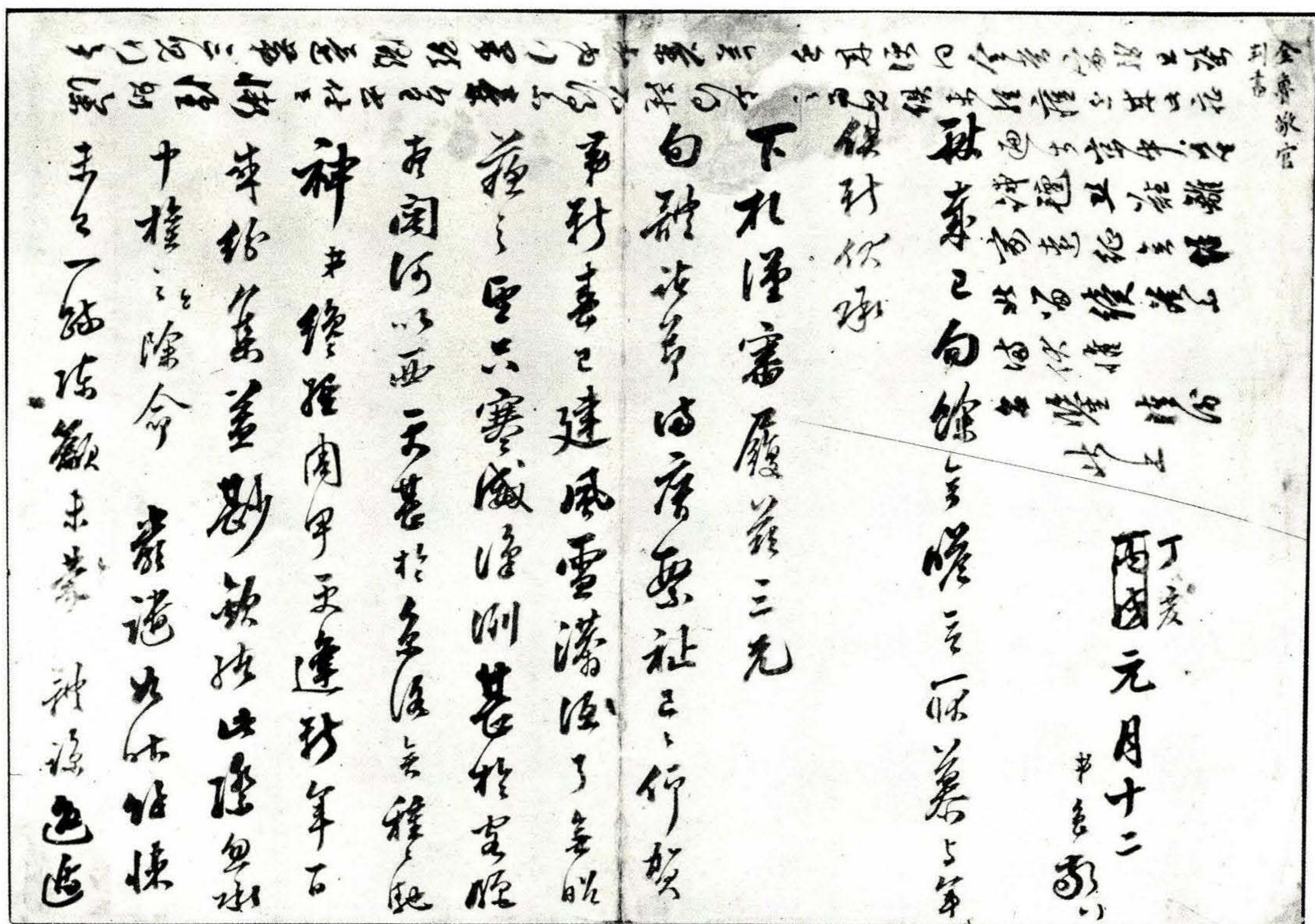
鳥獸部

羽虫

陸禽

李 暉 衡 所 藏

金 魯 敬
慶州人
号 酉堂
英祖42年~憲宗 6 年
(1766~1840)
官 吏. 禮. 工. 刑. 兵判
緣故 新岩



李 貞 遠 所 藏

獻歲已旬餘矣瞻言耿慕與年
俱新伏承
下札謹審履茲三元
旬體諸節備膺繁祉區々仰賀
第新春已建風雪滿迤耳無昭
蘇之望只寒威凜冽甚於客臘
想閼河以西更甚於京洛矣種々馳
神弟纔經周甲更逢新年百
感紛集益慙歛緒此際忽承
中權之除命嚴譴如昨餘悚
未即一疏陳顙未蒙 體諒邂逅
不得雖不得不章皇出仕而慚懷則深
矣萬不內行果欲撤還第三兒行事
近來便同令當家務且槩
之兩兒俱未經痘近來此症
遍於京中如坐鍼氈恐難離
家遠征矣餘姑留續候不
備伏惟
台鑒 陳謝
狀上 丁亥元月十二
第魯敬拜

金 正 喜

慶州人

号 秋史, 阮堂, 禮堂, 詩庵, 果坡, 老果

老阮, 老鬲, 覃研齋

英祖52年~哲宗 7 年

(1776~1856)

官 兵參

緣故 新岩

(忠清南道地方文化財五三號)

克明峻德賦

次上

二天

乾元大而帝則攬震鱗而乘六其為君也大哉揭日修其聖神天生克而大德
驗體用於終始暨平日而照四峻一德而明之認晉揚其光輝自在初而孔明
首庶物而純粹續欽文又恭護茅宮穆其御極思惟及神睦九誘民衆而欲廣
統萬理而虛靈儘浩其天者並鑑明之至治期化成於章百願厥本而焉迪
民吾本其同胞誠何間於聖恩存諸心而及人凡食之予在下審精一而執中
罔不有此懿德寔收係於修暴宜先我而明之庶不識而順則固林麓而立極
推孝悌而百行丹辰穆其顧謏終既有此內美雖天姿之自懿光華發而四被
攬物則而昭示德之峻予克乎遂大明於天下收聖工之彌萬身以暨于家國
明一德而克善續望雲而就日登書經而上下柯有則而不遠苟無實其孰信
寔萬姓而有餘煥爛燁其揚輝更既得此中正簡垂述而可尚亦在茲而昭
依前軌而折中寧蒙昧於辨意塞將謬予舒卷琅自古而則之折璇題而徽燕
作後鑑於千載自昭漸於探者所積人者相傳迄于今而鍾云仰丹墀而興嘆

風雨時
節五穀
熟長保
二親樂
無極
漢鏡銘
書贈太卿
仁弟
阮堂

金煥冀所藏

篆隸而後水部已誌朱墨
三隸以卷暇逢之廣橋宜出尋常
石流金樂佐甲寅後初有或
過之竊想南陸九有見者
是取祝以接北報大嶠以南
光年而傷者如秋後山為境
波浪未忘果也何而只令人
心而已不止為九偏慮也
所損性不甚悅神慮為魚
蟹者之無所憾願
影錄不改其舊數除似承
下此常無此及印之來人
甚詳所推式書在以前
九係謝禮之更問後新
日蓋甚如在火達海中

金正書官奉判

李貞遠所藏

申榮道所藏

皇穹降割
鶴馭賓天普切慟冤
伏惟霖熱秋來更劇
棟候動定萬衛仰溯
不己記末間際夙夜日事
奔走苦隣奈何節
簞留之已久竟便無階
今始送上可作秋風再
熱之具耳 今允
輩一安否耿々餘萬赴
上潦草不備書儀
庚寅七月初六日金正喜拜

即便匪料承
書欣瀉更切從審獵
靜履增重仰慰第
慘祥已過想悼痛倍
新也何等奉念不佞一味
不木之頑而又此逼年
情私尤難制耳
示意一々備悉若非
左右之隨處曲念何以如
是也第於昌也及奴輩
許有所書餘者即使移
運無至虛絲之地如何
向後事終當有爛音
處々都留追報耳
此便忙略此草々
不備
辛卯十二月二十七日
正拜

朴炳善所藏

芝山靜庵西溪
龍多日乙
運多至玄陰淨地
向以奉一於多多網
意之者多追新
以候西制承之
書欣瀉更切從審獵
靜履增重仰慰第
慘祥已過想悼痛倍
新也何等奉念不佞一味
不木之頑而又此逼年
情私尤難制耳
示意一々備悉若非
左右之隨處曲念何以如
是也第於昌也及奴輩
許有所書餘者即使移
運無至虛絲之地如何
向後事終當有爛音
處々都留追報耳
此便忙略此草々
不備
辛卯十二月二十七日
正拜

金 命 喜

慶州人

号 山泉

正祖 2 年 ~ 哲宗 7 年

(1778 ~ 1856)

官 縣令

緣故 新岩

華嚴寺 上樑文

華嚴寺重建上樑文

翠鮮尋雲申佛勅於舊址紺宮耀日昇法幢於
新觀廣開方便之門永樹堅牢之地蓋開須達
九千精舍信心布祇苑之金阿育百萬浮圖神
力攝天宮之匠斯皆度衆生以沙雲龍象空門
起三界以斯登金湯淨土運使星龕月殿苞羅
四部之區綺栴雕費藻繪三韓之境末流像法
榮飾弘多有漏小乘祖師悲憫曷若回釋教而
禪世法宏願力而悅人心如龍山華嚴寺哉惟
華嚴寺烏石鍾靈龍山標勝片雲中起慰四郊
霖雨之望層巒後環兜九疊屏風之象火宅起
慈如之厄石像點頭塔輪現舍利之光法嗣灌
頂十笏維摩之室世界差寬三閭廣嚴之居家
風具在粵惟我 曾王考貞孝公爰就瑕邱之
樂為營防墓之藏地十牛眠吉宅奠萬年之兆
松無鹿觸美陰環十里之封丙舍蒐獲右軍有
誓墓之志千楸檀越晉公占福先之基於是招
提仍作齋宮楸柏近連祇樹晨鐘暮磬警在樵
蘇春露秋霜證成夏臘素靈獻龍井之地法界
重修緇侶灑醵人之珠 中宸垂獎非藉未
來之報應庶要外護之功行第以年代屢遷道
場寢毀成住壞空之任運非法力之有虧棟梁
榱桷之垂顛嗟法身之無庇然而隨身樓閣無
法可賴發願佈施即心是道奉高曾矩引之子
子孫孫報佛祖恩誓以生主立銅山入室感

宰官迴向之心鐵輪呈材賴昔日栽培之力遂
乃誦吉日選良二奠輪開林壑之荒般般獻技
度屋識幃幃之利經家安度寶座莊嚴歡動失
家之子香廚功德普供持鉢之人碧窓納百里
之坪東張珠網未棋接千尋之巖西振繡幡奚
徒淨界之重新實幸佳城之愈翠夜摩訶利長
瞻 雲漢之昭回白足赤髭亦戒甘棠之剪拜
南陽京兆吉阡並須彌無驚華表桓楹儀物共
金剛不壞豈止於虎叩舍宅珣珙求福田廬阜
入林宗雷結淨社而已哉恭成短引助舉脩梁
兒郎偉拋梁東晝光普照十方同遠山環作青
螺髻隱窅香泉指顧中兒郎偉拋梁南峯頭玉
露滴青嵐招招近浦行人渡着處津梁佛力添
兒郎偉拋梁西層巒巖峩象緯齊膚寸雲能興
雨足老龍聞却鉢中棲兒郎偉拋梁北豐碑遙
對相輪直定知佳氣歇無時 宸翰昭回雲
五色兒郎偉拋梁上慈意大雲常願仰稽首者
聖人之壽同無量兒郎偉拋梁
下桑麻黍稷開膏野爾曹安得有貪嗔自是熙
熙耕鑿者伏願上梁之後風雨無災天龍護法
鐘魚肅穆永真大方丈禪居松檜蔥蘢長街小
蓬萊仙境
聖上即昨十二年戊戌年丙午六月十九日酉
時上梁 山泉居士金命喜書于烏山丙舍

李宗秉

韓山人

號萊亭

正祖19年～哲宗8年

(1795～1857)

官兵參

緣故大述

建元齋雨中

溪雨寒泉響徹潺青烟起處
是人間相邀百遍通三徑却
笑千忙有一間籬下餘葩應待
酒簷前落木好看山吾遊自
適誰能障高出爭名
競利関

萊亭 李宗秉

李文遠 所藏

建元之雨中
溪雨寒泉響徹潺青烟起處
是人間相邀百遍通三徑却
笑千忙有一間籬下餘葩應待
酒簷前落木好看山吾遊自
適誰能障高出爭名
競利関
萊亭

本固堂記

天下事有本有末務其本者雖若迂遠而實易得力循其末者雖若切至而實難爲功譬之根深者末

茂源遠者流長物皆然人爲甚定以君子務本々立則道生定道也

原於天而賦於人具於心而達於用不以貴賤賢愚而有異同亦不以

古今用舍而有加損故曰如有用我者期月而已可也三年有成又曰其君

用之則安富尊榮其子弟從之則

孝悌忠信夫定無埋聖人言之谷

城郡德山之下錦溪之上有堂曰本

固玉川趙氏平泉其先竹軒公承襲

名門溯源感大工程也近思小學

制行也勤儉禮讓五致備德三年

侍塚距今數百年士林傳誦樵牧

指點遺風餘韻愈久愈新則蓋

其積累決非一朝一夕之故矣堂是

竹軒子婦朴夫人所捐建子孫而曾

玄々而雲仍堂講趾美世傳無恙依

然有造物憑依者又有如錦坡紫谷

草堂數三君子當蹄迹交手玄

黃翻覆之際從事箕裘屹然特

立類流疾風不足以動舌一髮

則其培養本根長發技葉之符

驗宣著又不帝較然矣若其命

義所本前有所在特爲題外之說

以廣其意付諗于門中僉君子

上之四十一歲在甲辰孟陬之日

月城崔益鉉 走草

崔 益 鉉
慶州人 勉庵
純祖33年~高宗43年
(1833~1906)
官 宮內府特進官
緣故 光時

本固堂記

天下事有本有末務其本者雖若

迂遠而實易得力循其末者雖若切

至而實難爲功譬之根深者末

茂源遠者流長物皆然人爲甚定

以君子務本々立則道生定道也

原於天而賦於人具於心而達於用

不以貴賤賢愚而有異同亦不以

古今用舍而有加損故曰如有用我者

期月而已可也三年有成又曰其君

用之則安富尊榮其子弟從之則

孝悌忠信夫定無埋聖人言之谷

城郡德山之下錦溪之上有堂曰本

固玉川趙氏平泉其先竹軒公承襲

名門溯源感大工程也近思小學

制行也勤儉禮讓五致備德三年

侍塚距今數百年士林傳誦樵牧

指點遺風餘韻愈久愈新則蓋

其積累決非一朝一夕之故矣堂是

竹軒子婦朴夫人所捐建子孫而曾

玄々而雲仍堂講趾美世傳無恙依

然有造物憑依者又有如錦坡紫谷

草堂數三君子當蹄迹交手玄

黃翻覆之際從事箕裘屹然特

立類流疾風不足以動舌一髮

則其培養本根長發技葉之符

驗宣著又不帝較然矣若其命

義所本前有所在特爲題外之說

以廣其意付諗于門中僉君子

上之四十一歲在甲辰孟陬之日

月城崔益鉉 走草

天下事有本有末務其本者雖若

迂遠而實易得力循其末者雖若切

至而實難爲功譬之根深者末

茂源遠者流長物皆然人爲甚定

以君子務本々立則道生定道也

原於天而賦於人具於心而達於用

不以貴賤賢愚而有異同亦不以

古今用舍而有加損故曰如有用我者

期月而已可也三年有成又曰其君

用之則安富尊榮其子弟從之則

孝悌忠信夫定無埋聖人言之谷

城郡德山之下錦溪之上有堂曰本

固玉川趙氏平泉其先竹軒公承襲

名門溯源感大工程也近思小學

李 南 珪
韓山人
号 修堂
哲宗 6 年～純宗 1 年
(1855～1907)
官 宮内府特進官
緣故 大述

嗟哉麴蘖禍人之酷腐腸生疾迷
性失德在身戕身在國覆國我嘗
其毒子帖其害抑之有戒胡不共勗
剛以制之自求多福

此退溪老先生酒誡爲金應順作也
生三事一恩義罔間而篤愛之情父
子尤切庸敢書揭壁上既以自戒因
戒忠求

丙午正月上泮後學李南珪敬書
宗族賓友與忠求遊者願共此戒

嗟哉麴蘖禍人之酷腐腸生疾迷
性失德在身戕身在國覆國我嘗
其毒子帖其害抑之有戒胡不共勗
剛以制之自求多福

此退溪老先生酒誡爲金應順作也
生三事一恩義罔間而篤愛之情父
子尤切庸敢書揭壁上既以自戒因
戒忠求

丙午正月上泮後學李南珪敬書
宗族賓友與忠求遊者願共此戒

李昶馥所藏

外改服入庭行望 闕禮乃上官受官屬鎮屬參謁是日行十里

十八日晴謁聖于鄉校召見儒生之參禮者仍詣社稷壇奉

審分遣禮監奉審屬壇城隍社社神所奉後壁顏什至以

葛黍稷障蔽卽令座首卜日修葺

十九日晴送禮公狀及到任狀于巡兵營自巡營以撤礦

事有關防報高原俾委人書問兼送簡筆十枝

二十日晴定平人元貞變被本邑德興社清源洞朱哥縛

絡致斃出往行檢

二十一日晴午前還官推問諸罪人朴承宣韓淳自洪原

謫所宥還出見所館仍與偕入夕後朴令止宿

二十二日晴朴令朝飯後發去推問諸罪人正犯朱明鎮逃

躲未捉可歎

二十三日雨推問諸罪人

二十四日雨跌辭草定正犯尚未現捉可歎

二十五日晴曉詣客舍行望賀禮今日卽千秋聖節也憶

每年此日趨參候班今逃違 猷校又當 官聞震驚之餘

總結之忱不能自己以 慶節故檢案今日姑不封送

一十六日晴官奴昌信送京中付諸處書清源里又有微事

血定平元哥昇烙斃之屍嘯聚而未逞憾於朱哥諸族朱明

甲午年 日記의 一面

李文遠所藏

詩集中의 一面 (두루마리)

山水優遊宜相宿自在身身在清池色元不厭

清溪 江山佳處氣舒利不諫身身向來口富何處

老貧

不貧 吾名似蓋我身實是陶身身是子服南地接出還

訪李西威隱居

玉界山空已十年松花散處磨鏡江天麻衣細細掃

訪李西威隱居

穿鞋訪隱入楓林坐立山空水清溪路好好無邊

日手鹿羣方破卧重心風懷東壁靜仙舟月

聖壽

開天下舊舊林廣地也今歲月溪耕釣此生

沙素志簪裾一代負丹心江臺日把嘲風年那

招以抄帶月琴一接那家祿字辭上除行紅耳

出香

者懷汝受

十有三年事詩詩喜夢花月松陰暖溪洞有訪

陰歲年去飯釣動意涉白髮長脚風佳一月抄香

次汝受韻

湛溪流古流草毛密跡處處入溪村

望啼淚出懷寫詩成少字數過桐間已日

潤江西

芳蘭女舟四時教都詩考萬出雲雲雲雲雲

遺墨을 収集 못한 名賢

姓 名	貫	号	年	代	官	緣	故
~高麗~							
姜民瞻	晋州		?	~顯宗12年(?)~1021)	兵部尚書	大	述
韓文俊	大興		?	~明宗20年(?)~1190)	平章事	大	興
都膺	星州	青松堂	麗	末	贊成事	鷹	峰
~李朝~							
李若水	廣州	牛泉	成宗17年~中宗26年	(1486~1531)	進士	大	興
李湛	龍仁	靜存齋	中宗5年~宣祖8年	(1510~1575)	副提學	鳳	山
權璜	安東	叔玉(字)	中宗朝		典翰	鷹	峰
金虬	光州	灘叟	中宗16年~明宗20年	(1521~1565)	典翰	禮	山
朴泓	蔚山	清源(字)	中宗29年~宣祖26年	(1534~1593)	右衛大將	光	時
安敏學	廣州	楓厓	中宗37年~宣祖34年	(1542~1601)	縣監	鳳	山
李洽	韓山	醉菴	明宗4年~宣祖41年	(1549~1608)	獻納	鳳	山
趙挺	楊州	漢叟	明宗6年~?	(1551~?)	右議政	新	陽
成忻	昌寧	三槐堂	明宗10年~?	(1555~?)	司議	新	陽
李義培	韓山	宣伯(字)	?	~仁祖14年(?)~1636)	忠清兵馬使	鳳	山
李穆	韓山	明遠(字)	仁祖朝		軍器寺判官	鳳	山
李曼	全州	志曼(字)	宣祖38年~顯宗5年	(1605~1664)	戶參	鳳	山
李汝堯	韓山	君實(字)	光海13年~肅宗9年	(1621~1683)	知中樞	鳳	山
李之濂	咸豐	恥菴	仁祖6年~肅宗17年	(1628~1691)	縣令	德	山
趙師錫	楊州	晚海	仁祖10年~肅宗19年	(1632~1693)	左議政	大	興
李基夏	韓山	夏卿(字)	仁祖24年~肅宗44年	(1646~1718)	總戎使	鳳	山
朴斗世	蔚山	東巖	孝宗1年~英祖9年	(1650~1733)	知中樞	光	時
李德成	全州	盤谷	孝宗6年~肅宗30年	(1655~1704)	忠清監司	鷹	峰
金鎮圭	光山	竹泉	孝宗9年~肅宗42年	(1658~1716)	兵判	德	山
趙泰耆	楊州	素軒	顯宗1年~景宗3年	(1660~1723)	領議政	大	興
玄尚璧	星州	冠峰	英祖朝		翊衛司洗馬	禮	山
李思觀	韓山	長陰	肅宗31年~英祖52年	(1705~1776)	左議政	鳳	山
鄭晚錫	溫陽	過齊	英祖34年~純祖34年	(1758~1834)	右議政	光	時
李海愚	韓山	古風	英祖36年~純祖36年	(1760~1832)	刑判	鳳	山
金履喬	安東	竹里	英祖4年~純祖32年	(1764~1832)	左議政	大	興
李球	全州	南延君	?	~純祖22年(?)~1822)	五衙都總官	德	山
成遂默	昌寧	聖執(字)	正祖16年~?	(1792~?)	禮判	禮	山

後 記

- 遺墨을 選하던날 36度란 酷暑속에 74歲의 高齡이신 趙國元先生님이 구슬땀을 뻑으시던 모습 그리고 任昌淳先生 姜周鎭先生 李民樹先生 崔完秀先生의 勞苦는 잊을수 없다.
- 또한 이번에 여러모로 걱정을 해주신 鷺山 李殷相先生님과 激勵해주신 崔淳雨先生님에게 感謝 드린다.
- 이 所藏展을 마련하기까지 李鎭鳳郡守의 熱誠과 鄭石模知事의 誠意로 이루어 졌음을 밝혀 둔다.
- 서울에서는 鄉里의 일이라해서 東奔西走해 주신 李民樹先生과 鄭達善兄 禮山에서는 李尚載兄과 韓台熙兄의 勞苦도 잊을수가 없다.
- 家宝요 愛藏品이요 하나의 財産이기에 그 수집이 용이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무척 힘 들었다. 그것도 고장에서 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出品 되었다. 出品해준 名賢의 後孫과 愛藏人士에게 또한 感謝 한다.
- 이번의 스물네분 外의 名賢이 많이 계셨던것으로 안다. 이분들의 遺墨을 所藏하고 있는분은 連絡을 바란다. 다음 機會를 構想해 보는데 參考가 될상 싶다.
- 展示場의 陳列藏을 빌려 쓸 예정이었으나 서울에서만 끝내는 行事가 아니라는 特殊與件에서 이 끝이 되고 말았다.

(李 恒 馥)

正 誤 表

頁	誤	正
1 26行	려	펴
1 27行	할	한
8 下右1行	苑霞上	霞上苑
16 下右1行	祝之	祝文
24 3行	藝	菴
34 5行	英祖52年	正祖10年
34 6行	1776	1786
37 4行	正祖2年 (1778)	正祖12年 (1788)

記

酷署속에 74歳の 高齡이
을 찍으시던 모습 그리
李民樹先生 崔完秀先生

영을 해주신 鷺山 李殷
享雨先生님에게 感謝 드

李鎮鳳郡守의 熱誠과
이 뜻을 밝히 둔다.

해서 東奔西走해 주신
이에서는 李尚載兄과 韓
없다.

財産이기에 그 수집이
용이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무척 힘 들었
다. 그것도 고장에서 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出
品 되었다. 出品해준 名賢의 後孫과 愛藏人士에게
또한 感謝 한다.

○ 이번의 스물네분 外의 名賢이 많이 계셨던것으로
안다. 이분들의 遺墨을 所藏하고 있는분은 連絡을
바란다. 다음 機會를 構想해 보는데 參考가 될상
싶다.

○ 展示場의 陳列藏을 빌려 쓸 예정이었으나 서울에
서만 끝내는 行事가 아니라는 特殊與件에서 이 끝
이 되고 말았다.

(李 恒 馥)

作後鑑於千載自昭晰於探者所積人者相傳迄于今不稱云

不許複製

1978年 8月 20日

禮山郡 禮山邑 禮山里

發行 禮山文化院

電話 2441番

印刷 希光社